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김은정¹, 김수현^{2*}

¹기독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²남부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Pediatric Nursing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the Nursing Students

Eun-Jeoung Kim¹, Suhyun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²Departm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109명이며,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습기관($p=.022$), 대인관계($p<.05$), 전공만족($p=.010$), 실습만족($p=.006$), 동료관계($p=.035$), 임상실습 자기효능감($p=.029$)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8.7%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p=.019$)는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5.7%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affec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of pediatric nursing. Totally, 109 third-year students enrolled at the Department of Nursing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were surveyed for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March to November 2019,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termined that practice institution ($p=0.022$), interpersonal relationship ($p<0.05$), major satisfaction ($p=0.010$), practice satisfaction ($p=0.006$),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p=0.035$), and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p=0.029$), significantly affected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8.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ajor satisfaction ($p=0.0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the explanatory power of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was obtained as 15.7%. This study concludes that effective clinical practice in pediatric nursing can be achieved by applying an intervention strategy that enhanc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the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Pediatric Nursing Practice

*Corresponding Author : Suhyun Kim(Nambu Univ.)

email: ksh136112@nambu.ac.kr

Received June 2, 2021

Revised June 28,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간호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이다[1,2]. 간호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에서 국가고시 교과목을 포함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3]. 임상실습교육은 실습현장에서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준다[2,4]. 또한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간호학생들은 학습으로 형성된 이론적 지식들을 임상실습현장에 접목해 볼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형성하는 교육이다[4].

그러나 최근 의료 환경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이 높아지면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간호수행보다는 관찰에 의존하고 있다[5]. 임상실무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대학생에게 전문적인 간호실무 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6,7].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은 다양하고 질적인 간호활동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3,8].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지도교수, 임상현장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방법과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8].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적인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의 운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4].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기관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9]. 따라서 임상실습을 위한 기관 확보가 어려운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운영에 있어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임상실습의 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10].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임상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10,11]. 임상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1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임상실습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함께 임상수행능

력 향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3,14].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맡은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13]. 일반적으로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평가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다. 자기효능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향후 변화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증진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13,14].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보다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좌절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14].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데[15] 이는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도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임상실습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관련 선행연구들은 임상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임상실습 관련 영향요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지만[16] 임상실습교육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간호학 임상실습교육은 감염과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인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과 다수의 아동전문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을 위한 기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간호학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의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에 관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 3학년 간호대학생 중 아동간호학실습을 마친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표본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변수는 총 8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09명인 것으로 나타나 탈락률 10%를 산정하여 1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3 자료수집

아동간호학실습에 참여하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헬싱키 선언에 의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의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대상자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2주간의 임상실습 기간 중 목요일이나 금요일 집담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교수자가 없는 세미나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이후에 연구자가 수거해서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9(90%)부를 분석하였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성별, 종교, 임상실습에서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임상실습 기관,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등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 31문항,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반응으로[17], Cho와 Kang[18]이 개발한 도구를 Lee, Kim, Kim[19]이 수정 및 보완한 31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다.

·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 동안 특정한 행동,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20] Harvey와 McMurray [21]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NCSE)와 Paker [22]의 간호사 대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Ann [23]이 수정 보완한 25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자신이 없다' 10점에서 '완전히 자신 있다' 100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Ann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PC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정도는 기술통계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정도는 t-test, one way ANOVA, Scheffé test 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 4)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 94명(86.2%), 남자 15명(13.8%)로 나타났고, 종교는 유 71명(65.1%), 무 38명(34.9%)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52명(47.7%), 간호사와의 관계 31명(28.4%), 타 의료인 19명(17.4%), 기타 7명(6.4%) 순으로 나타났고, 실습기관은 아동전문병원 67명(61.5%),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 42명(38.5%)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9

Category	Subcategory	n	%
Gender	Male	15	13.8
	Female	94	86.2
Religion	Yes	71	65.1
	No	38	34.9
Difficul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Nurses	31	28.4
	Patient and care giver	52	47.7
	Other health care provider	19	17.4
	Others	7	6.4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General hospital pediatric ward	42	38.5
	Children's hospital	67	61.5

3.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정도

전공만족도 3.87점, 실습만족도 4.01점, 동료와의 관계 4.36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 3.65점,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7.1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109

Variables	Range	M±SD	Min	Max
Major satisfaction	1-5	3.87±.63	3.00	5.00
Practice satisfaction	1-5	4.01±.63	2.00	5.00
Colleague relationship	1-5	4.36±.63	3.00	5.0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5	3.65±.43	2.68	4.65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1-10	7.15±.93	4.60	9.2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비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N=109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M	SD	M	SD	
Gender	Male	3.84	0.46	7.52	0.73
	Female	3.62	0.42	7.09	0.94
	t(p)	1.893(.061)		1.671(.098)	
Religion	Yes	3.66	0.44	7.14	0.95
	No	3.62	0.42	7.18	0.89
	t(p)	.474(.637)		-.217(.831)	
Difficul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Nurses	3.50	0.39	7.26	0.86
	Patient and care giver	3.74	0.46	6.98	1.01
	Other health care provider	3.67	0.39	7.23	0.69
	Others	3.59	0.41	7.76	0.96
	F(p)	2.111(.103)		1.850(.143)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General hospital pediatric ward	3.73	0.44	7.06	0.92
	Children's hospital	3.60	0.43	7.21	0.93
	t(p)	1.554(.123)		-.820(.414)	

3.4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전공만족($r=.449$, $p<.001$), 실습만족($r=.511$, $p<.001$), 동료와

Table 4.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N=109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Colleague relationshi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r(p)	r(p)	r(p)	r(p)	r(p)
Major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473 (<.001)				
Colleague relationship	.282 (p<.01)	.340 (<.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449 (<.001)	.511 (<.001)	.345 (<.001)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380 (<.001)	.308 (p<.01)	.169	.336 (<.001)	

의 관계($r=.345, p<.001$)에서 양의 상관을 보였고,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r=.390, p<.001$), 실습만족도($r=.308, p<.01$)에서 양의 상관을 보였다[Table 4].

3.5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임상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고,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1.904(=1.847)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이며, VIF 지수가 1.039~1.482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였다.

임상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습기관($p=.022$), 대인관계($p<.05$), 전공만족($p=.010$), 실습만족($p=.006$), 동료관계($p=.035$), 자신감($p=.029$)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238), 실습만족(=.256), 동료관계(=.174), 자신감(=.190)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며, 실습기관은 아동전문병원이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B=-.163$)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대인관계는 간호사와의 관계($B=-.175$)의 문제일 때 환자, 보호자의 문제일 때 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8.7%로 나타났다. 실습만족(=.256)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전공만족도, 자신감, 실습기관, 대인관계순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333	.366		3.638	.000
Gender (Female)*	-.053	.100	-.042	-.530	.598
Religion (Yes)	.059	.070	.065	.841	.402
Institution (Children's hospital)**	-.163	.070	-.184	-2.324	.022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es)***	-.175	.083	-.183	-2.105	.038
Interpersonal relationship	-.090	.095	-.079	-.951	.344

N=109

(Other health care provid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etc)	-.281	.143	-.160	-1.975	.051
Major satisfaction	.165	.063	.238	2.609	.01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76	.063	.256	2.796	.006
Colleague relationship	.120	.056	.174	2.134	.035
Self-efficacy	.089	.040	.190	2.220	.029

F(p)=7.830(.000), $R^2(adjR^2)=.444(.387)$, $d(d_U)=1.904(1.847)$

$d(d_U)$: Durbin-Watson's auto-correlation coefficient(upper critical limit)

* Dummy variable(1: Female, 0: Male)

** Dummy variable(1: Children's hospital, 0: General hospital pediatric ward)

*** Dummy variable(1: Nurses, 0: patient and care giver)

3.6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고,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2.014(=1.826)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이며, VIF 지수가 1.036~1.437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p=.019$)는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249)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5.7%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Variables influencing self-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555	.795		5.732	.000
Gender (Female)*	-.330	.248	-.123	-1.330	.187
Religion (Yes)	-.091	.174	-.047	-.525	.601
Institution (Children's hospital)**	.026	.176	.041	.147	.884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es)***	.396	.205	.194	1.936	.056

N=109

Interpersonal relationship (Other health care providers)	.176	.237	.072	.741	.461
Interpersonal relationship (etc)	.676	.350	.180	1.930	.056
Major satisfaction	.369	.154	.249	2.389	.019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74	.156	.187	1.763	.081
Colleague relationship	.049	.140	.033	.347	.730

F(p)=3.240(.002), R^2 (adj R^2)=.228(.157), $d(d_U)$ =2.014(1.826)

$d(d_U)$: Durbin-Watson's auto-correlation coefficient(upper critical limit)

* Dummy variable(1: Female, 0: Male)

** Dummy variable(1: Children's hospital, 0: General hospital pediatric ward)

*** Dummy variable(1: Nurses, 0: patient and care giver)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중재 전략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인관계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47.7%)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임상실습에 관한 선행연구[24]에서는 간호사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소 익숙하지 않은 아동환자와 예민한 보호자와의 관계가 간호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추후 치료적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아동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역할극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는 간호사와의 관계 31명(28.4%), 타 의료인 19명(17.4%), 기타 7명(6.4%) 순으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임상실습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25].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만족도는 $3.65 \pm .43$ 점으로 나타났는데,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임상실습 만족도를 평가한 선행연구[26-28]보다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Kim 등 [2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3 \pm .44$ 이었고, Seo[27]와 Han[28]의 연구결과 보다 높았다. 이는 아동간호학 실습

교과목의 특성상 본 연구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이루어졌던 임상실습기관의 지역적 특성과 임상실습시기, 임상실습 교과목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추후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의 경험을 살펴보면[29], 아동대상자들이 간호학생들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따르거나 친밀해지는 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가 높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경험할 수 없는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의 특성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실습이 이루어졌던 아동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한 아동대상자의 질병 중증도가 낮았기 때문에 임상실습 만족도가 다른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7.15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국 4년제 대학 8곳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평가한 Han의 연구보다[30]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결과와 달리, 선행연구[30]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실습시 어려웠던 관계, 실습 중 수행비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가[30] 아동간호학실습과 같이 특정 교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임상실습을 4주이상 수행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로 4학년보다 임상실습의 경험이 적고, 특히 관찰위주로 진행되는 아동간호학실습의 특성상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더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임상실습 영역에 맞게 개발된 본 도구를 활용하여 학년의 차이, 임상실습교과목의 차이, 임상실습기관의 차이 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에서[26-28] 성별, 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이 아동전문병원에서 67명(61.5%),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42명(38.5%)이 이루어졌는데, 임상실습기관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임상실습기관 확보가 어려운 현 시점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기관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영향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임상실습기관에 전적으로 학생들의 지도를 맡기기 보다는, 현장지도자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효과적인 집담회의 운영방식과 임상실습 지도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31,32].

간호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기관별 실습만족도를 연구한 사례가 없어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기관별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건소, 치과병의원, 치과대학병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33]. 치과대학병원에서의 실습이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이 높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습에 흥미를 느끼게 하지만, 치과병의원은 친화력을 갖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실습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하지만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실습기관의 유형이 클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4]. 그 이유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일 경우,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 비하여 기구를 비롯해서 관찰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고, 좀 더 포괄적인 진료를 함으로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35]. 또한 졸업 후 대학병원 치과의 취업을 희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무조건과 환경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36]. 치위생학과와 특성은 간호교육과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효과적인 임상실습운영을 위해서 임상실습기관에 따른 특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전공만족, 실습만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을 보였고,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 실습만족에서 양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37-38]. 하지만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동일한 도구로 평가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습기관, 대인관계, 전공만족, 실습만족, 동료관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37]. 즉, 전공만족, 실습만족, 동료관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며, 실습기관은 아동전문병원이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대인관계는 환자, 보호자의 문제일 때 보다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문제일 때,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8.7%로 나타났다. 실습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실습기관, 대인관계 순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내실습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았다[38].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5.7%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공교과목에 대한 적응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공교과목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간호학 실습교과목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및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 연구들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에 참여한 일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아동간호학실습에 있어서 성별, 종교, 임상실습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 정도, 임상실습기관의 특성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

었는데 전공만족, 실습만족, 동료관계, 자신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며, 실습기관은 아동전문병원 이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대인관계는 간호사와의 관계의 문제일 때 환자, 보호자의 문제일 때 보다 임상 실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아동간호학실습의 운영을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전공만족도와 전반적인 실습교과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수립, 동료 간 관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J. Cho, J. Y. Lee, "A Study on self-esteem, professional valu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8498-8508,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2.8498>
- [2] M. H. Waldner, J. K. Olson,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4, No. 1, pp. 1-14, 2007.
DOI: <https://doi.org/10.2202/1548-923x.1317>
- [3] K. O. Choi, H. S. Jo, C. Y. Kim, B. Y. Kim, S. J. Chang, "The teaching effectiveness of preceptorship and satisfaction of student for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8, No. 1, pp. 73-83, 2002.
- [4] A. S. Park, *The relation of autonomy in clinical practice and satisfaction of student nurses*,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13.
- [5] P. Bradley, K. Postlethwaite, "Simulation in clinical learning", *Medical Education*, Vol. 37, No. 1, pp. 1-5, 2003.
- [6] Korean Nurses Association, "Experiences in clinical practice training for new nurses who have moved to work", Seoul, 2011.
- [7] S. J. Benson, "Promoting student participation and learning in the observational clinical setting", *Teaching and Learning in Nursing*, Vol. 1, No. 2, pp. 43-46, 2006.
- [8] M. H. Cho, *A study on the experience and confidence on clinical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gu, 2005.
- [9] D. O. Kim, S. W. Byun, H. J. Lee, "The factors influence of clinical competenc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7, pp. 85-92, 2019.
- [10]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2011.
- [11] E. H. Kim, Y. H. Oh, "An investigational stud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2, pp. 156-198, 2000.
- [12] H. S. Jeong,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1, pp. 132-146, 2000.
- [13] J. J. Yang,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 2, pp. 159-165, 2009.
- [14] H. S. Ch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2, pp. 222-231, 2005.
- [15] Y. H. Kim,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Fundamental Nursing*, Vol. 16, No. 3, pp. 307-315, 2009.
- [16] M. S. Yun, J. Y. Jo, "Experience and confidence on clinical nursing performance in delivery room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e setting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No. 2, pp. 909-921, 2010.
- [17] H. S. Kim, "Study on anxiet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Korean Jungang Medical Journal*, Vol. 53, No. 5, pp. 275-284, 1988.
- [18] K. J. Cho, H. 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4, No. 2, pp. 63-74, 1984.
- [19]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 219-231, 2004.
- [20] K. P. Reed, *Nursing practice self-efficacy and nursing practice outcome expectation s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Wisconsin, USA, 2006.
- [21] V. Harvey, N. McMurray, "Self-efficacy: A means of identifying problems in nursing education and career prog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31, pp. 471-485, 1994.
DOI: [https://doi.org/10.1016/0020-7489\(94\)90017-5](https://doi.org/10.1016/0020-7489(94)90017-5)
- [22] L. E. Parker, "When to fix it and when to

- leave: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control, self-efficacy, dissent and exi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8, pp. 949-959, 1993.
- [23] E. K. Ann, *A Model for clinical nurses' self- efficacy and work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on, 2000.
- [24] J. J. Yang, “The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erspectiv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2, pp. 276-286, 2000.
- [25] S. A. Mohamed, I. H. Fashafsheh,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training 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for nursing practice”, *Open Journal of Nursing*, Vol. 9, No. 8, pp.855-69, 2019.
DOI: <http://dx.doi.org/10.4236/ojn.2019.98064>
- [26] J. Kim, A. R. Lee, Y. Eo,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ccording to type of practic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students at child health nurs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542-548, 2013.
- [27]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7.
- [28] S. 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1, pp.132-146, 2000.
- [29] H. J. Park, O. B. Jung,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n ped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23, No. 2, pp. 1-13, 2019.
- [30] J. J. Ha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2.
- [31] R. Charleston, B. Happell, “Coping with uncertainty within the preceptorship experience: the percep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2, No. 3, pp. 303-309
DOI: <http://dx.doi.org/10.1111/j.1365-2850.2005.00837.x>
- [32] K. A.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nd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4, No. 2, pp.571-581, 2016.
DOI: <https://doi.org/10.15205/kschs.2016.6.30.571>
- [33] E. J. Jung,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some students majoring in the dental hygiene classified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Vol. 6, No. 1, pp. 37-46. 2018.
- [34] J. H. Jung, M. J. Lee, H. J. Goo, “Satisfaction towards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content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5, No. 4, pp.631-639, 2015.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5.15.04.631>
- [35] H. S. Sim, H. N. Lee, “The comparison of the satisfaction and the stress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the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s”, *Health & Welfare*, Vol. 21, No. 2, 103-118.
DOI: <https://doi.org/10.23948/kshw.2019.06.21.2.103>
- [36] O. S. Choi, G. S. Ahn, H. J. Kim,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clinical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n performan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5, No 2, pp. 182-189, 2015.
DOI: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2.182>
- [37] M. Lee, H. Jeon,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in the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5, pp. 55-64,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5.055>
- [38] Y. H. Kim,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Foundation Nursing*, Vol. 16, No. 3, pp. 307-315, 2009.

김 은 정(Eun-Jeoung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기독교간호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환자안전

김 수 현(Suhyun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9년 4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5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 간호교육, 건강증진, 다문화간호